**Market Index** / 30일

| 코스피지수 | | 코스닥지수 | | 유가(WTI, 달러) | | 환율(원) | | 살때 | 팔때 | | 살때 | 팔때 |
|---|---|---|---|---|---|---|---|---|---|---|---|---|
| ▲ 2063.05 +13.12 | | ▼ 621.76 -5.17 | | ▼ 55.91 -0.50 | | 1USD | | 1218.45 | 1176.55 | 1EUR | 1336.74 | 1284.58 |
| | | | | | | 100￥ | | 1130.55 | 1091.67 | 1CNY | 176.24 | 159.46 |

# 플랫폼 택시에 밀려 감차보상 '지리멸렬'

## 도 택시감차 목표 15대로 줄어… 정부 지원 축소 영향
## 과잉공급 예측치 줄며 조정 가능성… 정책 실효성 의문

택시공급과잉 문제와 경영·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택시감차계획이 플랫폼 택시 정책에 밀려 '지리멸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택시감사위원회가 2019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수를 15대(개인택시 11·일반택시 4)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1대(개인 15·일반 6)씩 감차하겠다는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다. 연도별로 2017년 24대, 지난해 23대 감축한 것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아졌다. 이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부가세 등의 지원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초 8억원이었던 국토부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액이 2억원으로 6억원이나 축소됐고, 결국 제주도는 감차보상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플랫폼 택시라는 규제혁신을 주력하는 만큼 택시감차 인센티브 축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택시감차 유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감차 보상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으로 진행하는 택시총량 기준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최근 (주)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제4차(2020-2024) 제주지역 택시총량산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택시 과잉공급 대수가 848대로 조사됐다. 3차(2015-2019) 계획에서 제시한 과잉대수 1737대와 비교해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과잉공급 대수 예측치가 줄어든 만큼 감차대수나 보상계획 수정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4차 연구 용역은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연도별 감차목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초쯤 나올 것"이라며 "감차계획과 보상계획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과잉공급 대수는 행복택시 증가와 관광객수·인구 증가 등의 여건을 토대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30일 2019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감차사업을 실시한다. 감차사업기간 내에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14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감차보상단가는 개인택시 대당 1억원, 일반택시 대당 3500만원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서귀포시 내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서귀포시가 미분양 해소 저조의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38개(수도권 6·지방 32)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 1곳이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 1곳이 제외됐다.

HUG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라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나흘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10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을 받는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배우자 출산휴가 내달부터 열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근로자 평균임금 전국 76% '꼴찌'

## 지난 4월 월급 288만원
## 연봉 환산시 3467만원

제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467만원으로 울산의 66.4%, 전국 평균의 76.4%에 머물며 전국에서 가장 낮다. 특히 전국에서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해 저임금 현상이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8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르면 도내 상용근로자의 4월 평균 임금은 288만900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3466만8000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임금 378만원에 89만1000원, 1위 울산의 435만3000원보다 146만4000원이 각각 적다. 서울 근로자의 월 임금은 422만6000원으로 2위다. 대구는 309만4000원으로 제주에 바로 앞서며 15위다.

제주의 임금 증감률은 지난해 4월 276만7000원에서 4.4%(전국 평균 4.0%) 증가했다.

지난 4월 기준 지역별 임금 총액은 울산, 서울, 충남, 전남, 경북, 경기, 대전, 경남, 충북, 인천, 전북, 부산, 강원, 광주, 대구, 제주의 순이다.

제주 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77.5시간으로 전국 평균의 181.8시간보다 적다. 타지역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제주만 유일하게 0.6시간 줄었다.

제조업 비중이 큰 경남(187.9시간)과 충남(187.3시간)의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인 높은 대전(175.9시간) 및 서울(177.5시간)의 근로시간은 짧다.

백금탁기자

# 한라봉 사전출하 검사제 찬성률 높아

## 만감류 재배 211농가 대상
## 서귀포시 설문조사 결과

서귀포시 지역 만감류 재배농가들은 '한라봉 사전출하 검사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출하하는 만감류에 대해 일정 당도와 산 함량을 검사해 출하토록 하는 것으로, 덜익은 한라봉을 앞당겨 출하하면서 시장에 맛없는 한라봉이 유통돼 소비자 외면과 가격 하락을 막자는 취지로 검토되고 있다. 또 농가들은 현재 만감류 중 한라봉에만 있는 상품기준을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다른 만감류에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귀포시는 9월 9~23일 만감류 재배 211농가(한라봉 82, 천혜향 49, 레드향 69, 황금향 11)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감류 사전출하 검사제, 적기 출하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내놨다.

설문조사 결과 만감류 재배농가 중 95%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출하하는 한라봉에 대한 사전출하 검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신맛이 많은 한라봉 조기출하를 막기 위해 3월 이후 출하하는 한라봉에 대해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3월 이후 출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6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한라봉은 상품기준(1개 무게 200g 이상,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이 있지만 그 외 만감류에는 없는 상품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80%(166명)가 만감류에 대한 품질검사제를 도입, 검사필 날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의 만감류의 주된 출하방법은 택배 35%, 계통출하 31%, 일반상인 33%, 기타 1%로 나타났다. 재배형태는 노지 7%, 비가림 41%, 가온 14%, 보조가온 38%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만감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성수기에도 일부 숙박업체 부진 지속"

## 한은 제주본부 3분기 보고서

여름 관광성수기가 끼어있는 3분기(7~9월)의 제주지역 대형 고급관광호텔 매출은 다소 선전했지만 일부 중소 숙박업체는 업황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30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9월호)'에 따르면 3분기 제주지역의 숙박업 매출은 대형 고급호텔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일부 중소 숙박업체는 객실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휴업하는 등 업황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 8월 50곳(392객실)을 포함해 올 들어 휴·폐업한 도내 숙박업체는 506곳(2953 객실, 누계 기준)에 이른다.

3분기 제주권 경기는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4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지난 2분기(4~6월)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산은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요는 설비·건설투자 등에서 전기인 2분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지속되면서 제주경제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회복한 외국인관광객은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사드 갈등으로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으며, 대만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소폭 줄고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도 모두 다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자금사정도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체 등의 부진으로 소폭 악화됐다. 전세버스업 역시 내국인 단체관광객이 줄며 부진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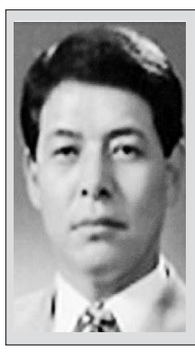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보합세다. 건설투자는 민가부문이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주택 증가, 저조한 수주 실적으로 침체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SOC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돼 민간부문의 부진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접)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접)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폐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입야(목장) 맹지28,842㎡ 6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아라동기자촌내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접 168㎡ 3억**
- 애월수산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접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접 대지조성 481㎡ 6.5억원
- 한림상명 조립식주택 60㎡/대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굿 자연녹지 3028㎡ 6.4억원

**※ 애월납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김녕해안도로접 2474㎡ 15억원